

부산 지역어 의문문 형성 방식의 개별적 특성

-대조언어학의 관점에 기초하여-

정대식(부산대)

<차 례>

1. 들어가기
 2. 이론적 배경: 대조언어학
 3. 언어 간 의문문 형성 방식의 차이
 4. 부산 지역어의 의문문 형성 방식
 5. 부산 지역어 설명의문문에서 의문사의 역할
 6. 결론
-

【버리】 이 글은 부산 지역어 의문문 형성 방식의 개별적 특성을 대조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다른 개별 언어와 대조하며 자세히 살펴보았다. 최근 글로컬 및 트랜스-로컬적 관점이 중시됨에 따라 대조언어학에서 흔히 소외되는 지역어를 국가 경계 언어와 동등한 지위에 두고 지역어의 개별성 특성을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을 실감하였다. 그리고 특히 부산 지역어의 의문문 형성 방식이 다른 언어들과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차이의 현황, 방향성, 문법적 가치 등을 파악하려 노력하였다. 먼저 영어는 주어-조동사 도치를 통해 판정의문문을 만들고, 여기에서 의문사의 가시적인 이동을 통해 설명의문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중국어는 평서문을 기준으로 의문 표지를 통해 판정의문문을 만들고, 평서문을 기준으로 의문사의 비가시적인 이동을 통해 설명의문문을 만들었다. 또 표준 한국어는 의문형 어말어미로 판정의문문을 만들고, 여기에 의문사

를 분포하여 설명의문문을 만들었다. 끝으로 부산 지역어는 판정의문형 어말어미로 판정의문문을 만들고, 설명의문형 어말어미로 설명의문문을 만들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각 국가 경계 언어와 부산 지역어의 차이를 이론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언어권의 학습자들이 의문문의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부산, 지역어, 방언, 의문문, 대조언어학

1. 들어가기

개별 언어에 따라 의문문을 만드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 영어는 영어대로, 중국어는 중국어대로, 한국어는 한국어대로 조금씩 다르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의 표준어뿐만 아니라 지역어 간에도 차이가 날 수 있다. 한국어에서 그 차이가 잘 알려진 지역어는 부산 지역어를 포함한 동남 지역어권 언어이다.¹⁾ 이에 따라 이 글은 영어와 중국어, 표준 한국어²⁾, 부산 지역어 등의 의문문 형성 방식이 문법론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차이가 오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증가하고, 관련된 연구에 관심이 늘어나면서 주목받은 것은 한국어의 개별 현상과 외국어의 개별 현상을 대조하여 그 차

1) 이 연구가 굳이 동남 지역어가 아니라 부산 지역어로 제한을 두는 것은 동남 지역어권 내에서도 의문 어미의 다양한 사용 양상이 있을 수 있고, 필자가 이에 대한 직관을 모두 갖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다루는 동일한 양상은 동남 지역에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

2) 지역어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논문에서 표준 한국어를 정의 내리는 일은 쉽지 않다.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 부산 지역어 화자들이 제주 지역어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또는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전제 아래, 모든 한국어 화자가 한국어로서 공동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언어를 표준 한국어로 간주한다.

이를 밝히고, 이를 한국어를 교육하는 교사가 교수·학습에 이용하여 언어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일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언어별 대조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거의 모든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대상은 국가 표준어인 한국어로 국내 특정 지역어를 다룬 경우는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³⁾

최근 글로컬(Glocal) 또는 트랜스-로컬(Trans-Local)이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내셔널 층위에 결박되어 있는 경계의 의미를 해체함으로써 무가치하거나 삭제 되어버린 현상들을 재현해내고 월경과 이주의 각종 주체들을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행위자로 복원(문재원 2022:69)”하려는 노력의 일환인데, 이처럼 이 연구는 언어의 대조에 있어서 지금까지 국가의 경계를 강조하여 소외된 지역어의 가치를 살펴봄으로써 국가 대 국가의 소통이 아닌 지역 대 지역의 소통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부산 지역어를 다른 지역어와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결국 국가 표준어들과 대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부산 지역어의 개별적 특성을 보이는 것은 앞으로 부산과 부산 지역어를 트랜스-로컬의 맥락에서 읽어 내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부산 지역어의 의문문 형성 방식의 개별성을 영어, 중국어, 표준 한국어와 대조하며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려 한다.

2. 이론적 배경: 대조언어학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이론적 배경인 대조언어학은 단순히 특정 언어의 기술적 차이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대조언어학은 “세계 여러 언어들 간의 비교와 대조 분석을 통하여 특징적인 언어 현상을 기술하고, 그 언어 현상이 인간의 어떠한 정신을 반영하는가에 대한 해석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3) 반대로 한중 대조 연구에서 한국어와 중국의 특정 지역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꽤 존재한다. 곡명월(2022), 기가옥(2019), 소신(2022), 이서림(2022), 장반반(2021), 장이원(2019), 호정정(2020) 등 참고.

인간의 보편적 인지 양상과 언어권별로 차이나는 상대적 인지 양상을 규명하는 학문(김미형 2009:39)”이다. 이러한 정의 속에서 특히 대조언어학은 특정 개별 언어를 선정하여 그 언어들의 개별성을 살피고 개별 언어 간의 표현의 차이를 살피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는다.

모든 언어는 같은 인간들이 삶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인간이 공통적으로 겪는 삶에 대해서는 같은 표현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언어에 따라 형태는 다르지만, ‘먹다’, ‘자다’, ‘걷다’ 등의 어휘는 모두 지니고 있으며,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등의 문장 유형은 모두 지니고 있다. 다만 그들의 삶을 표현하는 ‘방식’은 언어에 따라 다른데, 대조언어학의 첫 번째 과제는 이 표현 방식의 차이를 기술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표현 방식의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찾는 것이 다음의 과제인데,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언어학적인 측면이다. 잘 알려지다시피 문법은 모두 독립적인 범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하나의 현상이 반드시 다른 현상의 원인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가 풍부한 언어인데, 이는 한국어의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다시 말해, 한국어의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굴절접사가 풍부하다는 언어적인 이유에 있다. 더하여 이 연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어의 풍부한 어미의 존재는 문장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 이는 영어나 중국어 등 다른 언어와의 차이를 더욱 부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어 내에서도 마찬가지로의 모습이 보인다. 한국어는 지역어에 따라 어미의 종류에 차이가 있다. 표준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여러 어미가 각 지역어에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표준 한국어의 어미를 다른 어미로 대체하는 것도 있지만, 아예 대체할 수 없는 종류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부산 지역어의 의문형 어말어미 ‘-나’와 ‘-노’이다. 표준 한국어에서는 의문형 어말어미가 관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에 따라 구분되지 않지만, 부산 지역어의 의문형 어말어미는 관정의문형 어말어미와 설명의문형 어말어미로 구분된다.

- (1) 가. 철수는 밥을 먹었니?
 나. 누가 밥을 먹었니?
 다. 철수가 언제 밥을 먹었니?
 라. 철수가 어디서 밥을 먹었니?
 마. 철수가 무엇을 먹었니?
 바. 철수가 밥을 왜 먹었니?
- (2) 가. 철수는 밥(을) 먹었나?
 나. 누가 밥(을) 먹었노?
 다. 철수가 언제 밥(을) 먹었노?
 라. 철수가 어디서 밥(을) 먹었노?
 마. 철수가 무엇을 먹었노?
 바. 철수가 밥을 왜 먹었노?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표준 한국어는 의문사 분포와 무관하게 모든 문장에서 동일한 의문형 어말어미가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부산 지역어는 (2)ㄱ처럼 의문사가 분포하지 않으면 판정의문형 어말어미 ‘-나’가, (2)ㄴ~ㄴ처럼 의문사가 문장 내에 분포하면 설명의문형 어말어미 ‘-노’가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같은 한국어권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어에 따라 어말어미의 유형과 종류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언어적 차이는 의문문 형성이라는 문법 현상에도 큰 영향을 준다. 특히 문장 내에 의문사의 역할 차이를 야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한다.

언어학적인 측면 외에는 정신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김미형(2009:51)에서는 영어의 ‘fireman’, ‘policeman’, ‘mailman’ 등을 ‘fighter’, ‘police officer’, ‘mail carrier’ 등으로 바꾸고 있는 데에 비해, 한국어는 ‘교수’, ‘의사’, ‘군인’, ‘소방관’을 여성이 등장하면서 ‘여’라는 표현을 앞에 붙여서 사용한다는 점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 방향의 차이가 주는 의의는 적어도 언어학적인 측면은 아니며, 삶을 살아가며 사회를 인지하는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과 관련될 것이다.

이 연구는 대조언어학의 언어학적 측면에서 몇 가지 개별 언어를 통해 부산 지역어의 의문문이 지니는 개별적 특성을 알아보고, 그러한 특성이 언어학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인해 발생하였는지, 문법적으로는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3. 언어 간 의문문 형성 방식의 차이

3.1. 영어의 의문문 형성 방식

의문문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크게는 관정의문문(Yes-no Question)과 설명의문문(Wh-Ques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어는 관정의문문을 만들기 위하여 주어-조동사 도치의 방법을 사용하고, 설명의문문을 만들기 위하여 의문사를 분포하게 한다.

- (3) ㄱ. You can swim.
 ㄴ. Can you swim?
- (4) ㄱ. She can drive a car.
 ㄴ. Who can drive a car?
 ㄷ. When can she drive a car?
 ㄹ. Where can she drive a car?
 ㅁ. What can she drive?
 ㅂ. How can she drive a car?
 ㅅ. Why can she drive a car?

(3)은 평서문 ㄱ이 ㄴ처럼 관정의문문이 되면서 조동사 can이 you의 앞으로 이동한 모습이고, (4)는 평서문 ㄱ이 설명의문문이 되면서 조동사 can이 she 앞으로 이동한 후, 의문사 Who, When, Where, What, How, Why가 문장(절)의 맨 앞으로 이동한 모습이다. 이들이 '이동'했다는 사실은 의문사가

격을 지닌 채로 해석된다는 점으로부터 알 수 있다. 이처럼 영어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하여 주어-조동사 도치, 그리고 의문사 분포 및 가시적인 이동의 방식을 사용한다.

그런데 영어가 의문사를 만들기 위하여 왜 이러한 방식을 이용할까? 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는 특별히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항이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 주기 위해 Rizzi (1990), Lasnik & Saito (1992), Chomsky (1995/2005, 1998, 1999), Pesetsky & Torrego (2000) 등 의문문의 형성을 설명하는 연구자들은, 언어에는 의문문을 생성하는 자질 [Q]가 있으며, 이 자질은 판정의문문을 생성하도록 하는 자질이라서 이 자질이 조동사를 주어의 앞으로 이동하도록 만든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질 [wh]가 있는데, 이 자질은 설명의문문을 생성하도록 하는 자질이어서 의문사가 절의 맨 앞으로 이동하도록 만든다고 말한다.

위의 내용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영어의 설명의문문은 판정의문문에 기대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영어의 설명의문문 형성은 판정의문문을 형성하는 주어-조동사 도치 현상을 전제하여 의문사를 분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향의문문 등 의문사가 제자리에 존재하는 다른 문장 유형과 차이를 두기 위하여 의문사의 가시적인 이동을 이행한다. 이를 통해 영어의 주어-조동사 도치는 '의문문 형성'이라는 문법 현상에 아주 중요한 문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중국어의 의문문 형성 방식

중국어는 의문문 형성 방식이 영어와 조금 다르다. 중국어는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의 형성 방식이 독립적이다. 이를 Huang(1982)에서 제시된 예를 통해 살펴본다.

(5) ㄱ. 你 喜欢 这个 吗? (nǐ xǐhuān zhège ma?)

you like this Q

Do you like this?

ㄴ. 你 喜欢 谁? (nǐ xǐhuān shéi?)

you like who

Who do you like?

(5) ㄱ은 관정의문문으로 평서문의 구조와 완전히 동일한 상태에서 의문 표지 吗를 분포하도록 한 모습이고, (5) ㄴ은 의문 표지는 사라진 채 의문사 誰를 분포하도록 하여 설명의문문을 형성한 모습이다. 이 예를 보면 중국어는 관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이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정의문문은 평서문에서 의문 표지를 통해 의문문을 만들고, 설명의문문은 평서문에서 의문사를 분포하도록 하여 의문문을 만든다.⁴⁾ 다시 말해, 영어는 관정의문문을 만드는 주어-조동사 도치를 전제하여 설명의문문을 만드는 데에 비해, 중국어는 평서문에 의문 표지를 분포하도록 하여 관정의문문을 만들고, 평서문에 의문사를 분포하도록 하여 설명의문문을 만들어, 관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이 서로 관련 없이 만들어진다.

이처럼 중국어의 의문문이 평서문에 기대어 만들어지다 보니 중국어 의문사의 존재는 해당 언어형식의 분포만으로는 존재의 유무를 알 수가 없다. 중국어의 설명의문문은 영어와 마찬가지로 의문사가 분포하지만, 영어와는 달

-
- 4) 중국어에서 의문 표지가 없는 관정의문문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한국어에서도 평서평 종결어미를 분포하도록 한 채 억양만을 통해서 관정의문문을 만드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문법적 요소에 의한다기보다는 다른 차원의 형성 방식이라 할 만하다.

ㄱ. 你喜欢这个?

ㄴ. 남은 거 내가 다 먹는다?

반대로 중국어의 설명의문문에서 吗가 분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때의 吗는 생략 가능한 것으로 볼 때 의문 표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刘月华, 潘文娛, 赵淑华(2000:478)을 참고하시오.

리 ‘제자리 의문사 언어’여서 원래의 자리에 그대로 위치한다. 따라서 (5)ㄴ의 誰는 문맥에 따라 의문사로도, 부정사⁵⁾로도 해석될 수 있다.

(6) ㄱ. 你喜欢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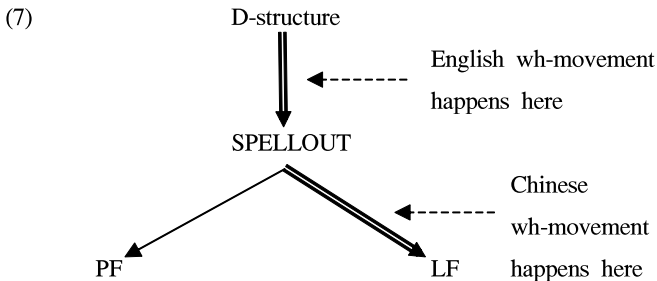
너는 누구를 좋아하니?

ㄴ. 我喜欢谁和你没关系。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너랑은 관계없어.

위의 예에서 (6)ㄱ의 誰는 목적어 위치에서 의문사의 역할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6)ㄴ의 誰도 목적어 위치에 있지만 이번에는 부정사의 역할을 하여 誰라는 언어형식의 존재만으로는 그것이 의문사로서 분포한 것인지, 부정사로서 분포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의 해소는 Huang (1982)의 논의로 설명된다. Huang (1982)에서는 중국어도 사실은 영어처럼 설명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절의 맨 앞으로 이동하지만 그것이 비가시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영어에서의 의문사 이동은 가시적이면서 중국어에서의 의문사 이동은 비가시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문장 생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동의 시기가 다르다고 해석하였다. 이를 Carnie (2013:400)을 통해 살펴본다.



5) 부정사(또는 미정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임홍빈(1988), 장소원(1998), 이선웅(2000), 박진희(2003), 김의수(2007), 이규호(2017) 등을 참고하시오.

위의 그림을 보면 영어의 의문사 이동은 문자화(SPELLOUT) 이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지만, 중국어의 의문사 이동은 이미 문자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비가시적으로 발생한다. 보편문법의 관점에 서 있는 Carnie (2013)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어는 영어와는 다른 의문사 이동의 매개변인을 지니고 있어서 위와 같은 비가시적인 의문사 이동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설명은 중국어의 의문사와 부정사가 같은 형태와 같은 분포를 지님에도 문법적으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해 준다.

3.3. 표준 한국어의 의문문 형성 방식

표준 한국어는 영어나 중국어와는 달리 모든 문장 유형이 문법적으로는 어말어미로 결정된다.

- (8) ㄱ. 철수는 나무를 보았다.
 ㄴ. 철수는 나무를 보았니?
 ㄷ. 철수는 무엇을 보았니?
 ㄹ. 철수는 나무를 보아라.
 ㅁ. 우리는 나무를 보자.

위의 예에서처럼 표준 한국어의 문장 유형은 명제는 그대로 둔 채로 어떠한 어말어미가 분포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표준 한국어의 판정의문문은 의문형 어말어미 ‘-니’ 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⁶⁾ 이는 마치 중국어가 판정의문문을 만들 때 의문 표지 嗎를 활용하는 것과 유사해 보인다. 그런데 표준 한국어는 중국어와는 달리 설명의문문을 만들 때도 여전히 동일한 의문형 어말어미 ‘-니’ 등을 통해야 하는데, 이는 (8)에서 살펴본

6) 물론 표준 한국어의 의문형 어말어미의 종류는 다양해서 ‘-니’뿐만 아니라 ‘-지, -까’ 등의 어말어미도 사용된다.

이렇게 보면 표준 한국어의 설명의문문 형성 방식은 오히려 영어와 유사하다. 영어가 관정의문문 형성 방식인 주어-조동사 도치를 전제하고, 의문사를 분포하도록 하여 설명의문문을 만들 듯이, 표준 한국어의 설명의문문 형성 방식도 관정의문문 형성 방식인 의문형 어말어미의 분포를 전제하고, 의문사를 분포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표준 한국어의 의문형 어말어미 분포((9)ㄴ의 ①)의 문법적 가치는 영어의 주어-조동사 도치((9)ㄱ의 ①)와 동등하다.

- 나. 그녀는 무엇을 운전할 수 있나?
 (2) (1)

(10) ㄱ. 철수는 무엇을 좋아하니?
 ㄴ. 철수는 무엇을 좋아한다.

위의 예에서 두 문장 모두 ‘무엇’이 분포하고 있지만, ㄱ에서는 의문문의 맥락에 분포하여 의문사임을 알 수 있고, ㄴ에서는 평서문의 맥락에 분포하여 부정사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표준 한국어도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비가시적으로 의무사가 이동하도록 처리해야 할 듯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중국어는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이 각각 평서문과 관련된다. 따라서 평서문에 의문 표지를 더하면 판정의문문이 되고, 평서문에 의문사를 더하면 설명의문문이 된다. 그런데 이때 설명의문문의 경우에는 평서문에 단지 의문사를 분포하게 하였을 뿐 겹구조상으로는 일반 평서문과 차이가 없는데, 평서문에는 또 같은 형태의 부정사가 분포할 수 있어서 의문사와 부정사의 혼란을 야기한다.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의문사의 비가시적인 이동을 통해 의문문의 구조적 차이를 설명하였다.

하지만 표준 한국어는 설명의문문이 영어와 같이 판정의문문과 관련되어 ‘의문문’이라는 전제 아래 의문사를 분포하게 한다. 다시 말해, 한국어의 설명의문문은 의문형 어말어미의 분포를 반드시 전제한다. 따라서 의문문 외의 문장 유형에 분포하는 부정사와 의문문에 분포하는 의문사는 같은 형태이지만 어떠한 문장에 분포하였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그래서 한국어의 의문사는 영어나 중국어와 같이 ‘이동’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의 형성에 억양 등이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논의는 또다시 달라진다. 문장의 구성에 따라 복잡한 양상이 있기는 하지만,⁷⁾ 일반적으로 (10)ㄱ은 억양에 따라 판정의문문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설명의문문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좋아하니?’의 억양이 상승하면 설명의문문이, 억양이 하강하면 판정의문문이 된다.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면 문법적으로는 (10)ㄱ에 있는 ‘무엇’의 분포 그 자체만으로는 의문사인지 부정사인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오히려 현대의 문법 모형에 따라 통사부의 출력값이 음운부의 입력값으로 작용한다고 보면 통사부에서부터 구분된 의문사와 부정사가 음운부의 억양 형성에 영향을 준

7) 의문문의 형성이 억양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음을 생각게끔 하는 논의가 있다. 평서형 종결어미의 분포를 통해서도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고민해 보아야 할 논의라고 생각한다. 관련 논의로는 류신애(2007), 윤원희 외(2020), 김용하·엄홍준(2020), 엄홍준·김용하(2020), 윤원희(2022), 윤원희(2023) 등을 참고하시오.

다고 볼 수도 있겠다.⁸⁾

이러한 논리 속에서는 한국어가 의문사와 부정사 구분을 위해 중국어와 같이 비가시적인 이동을 하였다고 간주할 수 없다. 앞서 (7)에서 살펴봤듯이 비가시적인 이동은 문자화(SPELLOUT) 이후 실행되어 음운부(PF)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에는 억양의 실행에 차이가 있으므로 의문사와 부정사의 구분이 음운부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어에서는 의문사 ‘무엇’과 부정사 ‘무엇’이 애초부터 형태만 같은 완전히 다른 어휘라고 볼 수밖에 없다.⁹⁾¹⁰⁾

이상 세 언어의 의문문 형성 방식을 간략히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언어	판정의문문 형성 방식	설명의문문 형성 방식
영어	주어-조동사 도치	주어-조동사 도치 + 의문사의 가시적 이동
중국어	의문 표지	의문사의 비가시적 이동
표준 한국어	의문형 어말어미	의문형 어말어미 + 의문사 분포

<표 1> 영어·중국어·표준 한국어의 의문문 형성 방식

- 8) 현대 문법의 언어 생성 모형을 살펴보면 통사부 연산 이후 음운부가 존재하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통사부 연산에서 ‘무엇’ 등과 같은 언어형식은 이미 의문사나 부정사 중 하나로 결정되어야 한다. 언어형식의 품사 정보 등이 통사 연산에서 결정되어 있어야 적절한 문장을 생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생성된 문장을 근거로 하여 음운부에서 음성 정보를 획득한다고 보면, 통사 연산 정보가 억양 형성의 근거가 되어 순서상 통사부의 출력값, 곧 음운부의 입력값에 의해 억양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이론적 근거가 되는 문법 모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9) 중국어의 경우에는 (4)ㄱ, ㄴ의 誰가 성조까지 똑같다. 따라서 ㄱ과 ㄴ의 두 어휘가 완전히 다른 어휘라고 말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중국어는 개별 언어의 특성상 같은 어휘가 분포하는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통용되어 쓰인다. 이러한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誰가 다른 어휘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같은 어휘가 쓰인 것이라도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 10) 이 내용은 이론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논의될 수 있다. 기능 범주를 먼저 투사하고 구체적인 어휘를 나중에 투사하는 문법 모형 이론에서는 의문사 또는 부정사의 기능 범주를 먼저 투사한 뒤, ‘무엇’과 같은 구체적인 어휘를 투사하였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때에는 구체적인 어휘로서의 ‘무엇’을 의문사와 부정사로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될 수 있다.

4. 부산 지역어의 의문문 형성 방식

부산 지역어도 한국어권에 속하는 만큼 문장의 유형이 어말어미로부터 결정되며, 이에 따라 의문문도 의문형 어말어미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표준 한국어와는 달리 그 유형이 ‘-오’ 계와 ‘-아’ 계로 구분된다.

- | | |
|------------------------|---------|
| (11) ㄱ. 철수는 뭐/뭘 좀 먹었나? | (판정의문문) |
| ㄴ. 아까 만난 사람이 철수가? | (판정의문문) |
| ㄷ. 철수는 뭐/뭘 좀 먹었노? | (설명의문문) |
| ㄹ. 철수는 아까 뭐/뭘 한 거고? | (설명의문문) |

부산 지역어의 의문형 어말어미에는 (11) ㄱ, ㄷ과 같이 ‘-나/노’ 계열과 ㄴ, ㄹ과 같이 ‘-가/고’ 계열로 구분되는데, 그러한 구분과 별개로 ‘-아’ 계인 ‘-나’, ‘-가’가 분포한 ㄱ, ㄴ은 판정의문문으로 해석되고, ‘-오’ 계인 ‘-노’, ‘-고’가 분포한 ㄷ, ㄹ은 설명의문문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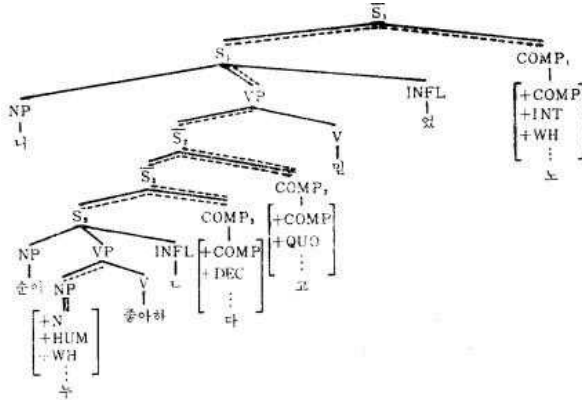
이에 대하여 이전의 논의에서는 표준 한국어의 분석 방식과 마찬가지로 의문사의 분포가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대표적으로 서정목(1984:39)에서는 “비록 이동은 없지만 문말 어미를 ‘-노’로 할 것인지 ‘-나’로 할 것인지의 결정력은 의문사가 가진다.”라고 주장하였고, 박인진(2008:110)에서도 “각 문장은 의문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노?’를 술어동사의 의문형종결어미로 취하게 된다.”라고 하였다.¹¹⁾

특히 서정목(1984)에서는 설명의문문의 형성과 관련하여 의문사가 지닌 [+wh] 자질이 문장의 동사에까지 삼투되어 문장의 어미를 같은 [+wh] 자질을 지닌 ‘-노’로 결정해 준다고 보았다. 삼투되는 과정을 해당 논문에서 가져와 보이면 다음과 같다.

11) 이 외에도 김혜영(2002), 박은주(2003) 등도 유사한 견해를 보인다.

(12) ㄱ. 순이가 누를 좋아한다고 믿었노?

ㄴ.



위 그림은 맨 아래에 있는 '누'가 지니는 자질이 수형도의 점선을 따라 올라가 '-노'에까지 영향을 미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서정목(1985:3장)에서는 의문사와 부정사의 형태가 동일함을 고려하여 '누'와 같은 항목에 '초점'이 놓이면 그것은 의문사가 되어 (12)ㄴ처럼 어말어미에까지 영향을 주어 '-노'가 분포할 수 있다고 보았고, 해당 문장의 다른 항목에 초점이 놓이면 '누'는 부정사가 되어 어말어미에 영향을 주지 못해 판정의문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한국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어말어미를 통해 문장 유형이 결정되며, 이러한 사실은 부산 지역어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기존의 논의는 거꾸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실제 문장 전체의 핵어는 어말어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말어미가 의문사의 분포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최소주의의 관점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Chomsky 1998, 1999). 최소주의의 논리에 서면 의문형 어말어미가 자신이 지닌 비해석성의 자질 [wh]를 삭제하기 위해 의문사를 찾게 되고 곧 의문사가 지닌 해석성 자질 [wh]를

통해 의문형 어말어미가 지닌 비해석성 자질 [wh]을 삭제한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의문형 어말어미가 의문사를 찾는 것이지, 의문사가 의문형 어말어미를 찾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위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부산 지역어의 어말어미는 영어와 같은 비해석성의 자질 [wh]를 지닌 것이 아니라 해석성 자질 [wh]를 지닌 것 같다. 해석성 자질과 비해석성 자질의 차이는 실제로 의미상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가에 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수의 자질은 복수라는 의미를 실제 문장에 반영하고 이에 따른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영어에서 수 자질은 해석성 자질이다. 그런데 부산 지역어는 ‘-나’ 계의 의문형 어말어미가 분포하는지, ‘-노’ 계의 의문형 어말어미가 분포하는지에 따라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의 구분이 곧바로 이루어진다.

(13) ㄱ. 철수가 무엇을 좋아하니?

ㄴ. 철수가 뭘 좋아하나?

ㄷ. 철수가 뭘 좋아하노?

표준 한국어에서는 (13) ㄱ처럼 판정의문문이든 설명의문문이든 관계없이 모두 같은 형태의 의문형 어말어미가 사용된다. 그리고 문장에 걸린 억양에 따라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이 구분된다.¹²⁾ 하지만 부산 지역어는 (10) ㄴ과 ㄷ처럼 판정의문문 어말어미 ‘-나’와 설명의문문 어말어미 ‘-노’로 의문문의 종류가 바로 구분된다. 다시 말해, 어떠한 어말어미가 분포하였는지에 따라 문장의 의미 해석에 즉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최소주의의 관점에서 서지 않아도 이러한 구분은 다른 언어와 확연히 차이가 난다. 부산 지역어의 의문문 형성이 영어와도 중국어와도 표준 한국어와도 다르다는 점이 어말어미의 분포로 드러난다. 부산 지역어는 한국어권 언

12) 편의상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통사 연산 이후 음운부를 가정하면 통사 연산에서부터 의문문의 유형은 결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억양이 결정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로서 어말어미를 통해 문장의 유형이 결정되면서도, 동시에 관정의문문의 어말어미와 설명의문문의 어말어미가 선명하게 분리되어 있어 의문 표지를 사용하는 중국어나 어말어미를 사용하는 표준 한국어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 비하여 의문문을 형성하는 데 있어 의문사의 역할이 비교적 작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는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산 지역어에 나타나는 어말어미 기능의 다양성이 다른 범주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곧 의문사의 문법적 가치에까지 다른 언어와의 차이를 가져온 것이다.

지금까지의 언어들은 설명의문문을 생성하는 직접적인 표지가 없어서 이를 의문사의 역할로 다루어 왔다. 영어는 의문사의 가시적인 이동, 중국어는 의문사의 비가시적인 이동, 표준 한국어는 의문사의 분포 그 자체를 설명의문문의 형성 방식으로써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부산 지역어는 설명의문문을 생성하는 직접적인 표지를 통하여 설명의문문을 만든다. 따라서 부산 지역어는 의문문 형성 방식에 대해 다른 언어와는 조금 다른 방법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	관정의문문 형성 방식	설명문의문문 형성 방식
영어	주어-조동사 도치	주어-조동사 도치 + 의문사의 가시적 이동
중국어	의문 표지	의문사의 비가시적 이동
표준 한국어	의문형 어말어미	의문형 어말어미 + 의문사 분포
부산 지역어	관정의문형 어말어미	설명문의문형 어말어미

<표 2> 영어.중국어.표준 한국어.부산 지역어의 의문문 형성 방식

5. 부산 지역어 설명의문문에서 의문사의 역할

지금까지 살핀 내용에 따르면, 의문사는 설명의문문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어에서는 의문사가 문장 내에 분포하는 것만으로는 설명의문문을 만들지 못하지만, 그것이 가시적인 이동을 함으로써 해당 문장이 설명의문문임을 드러내 보이는 역할을 하였다.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의문사가 문장 내에 분포하는 것만으로는 설명의문문을 만들지 못하지만, 그것이 비가시적인 이동을 함으로써 해당 문장이 설명의문문임을 드러내 보이는 역할을 하였다. 표준 한국어는 문장 내에 의문사가 분포하는 것만으로 해당 문장이 설명의문문임을 드러내 보이는 역할을 했다.

이처럼 각 언어에서 의문사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설명의문문의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의문사의 유무가 설명의문문이라는 문장의 유형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산 지역어에서는 조금 다르다. 부산 지역어는 의문사의 유무에 따라 문장의 유형이 설명의문문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부산 지역어는 다른 문장들이 그러하듯,¹³⁾ 설명의문형 어말어미로 결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의문사가 설명의문형 어말어미로부터 인허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모습은 마치 부정문의 부정사(否定詞)와 부정극어의 관계를 연상케 한다. 부정극어는 부정사와 함께 분포하여 부정사에게 그 분포를 인허(licensing)받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둘은 같은 절 내에 분포하는 것을 선호한다.

(14) ㄱ. *철수는 아무것도 먹고, 영이는 아무것도 안 먹었다.

ㄴ. *철수는 아무것도 안 먹고, 영이는 아무것도 먹었다.

위 두 문장이 올바르지 않은 이유는 ㄱ은 선행절에, ㄴ은 후행절에 부정극

13)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 등이 일반적으로 ‘-다’, ‘-라’, ‘-자’ 등의 OO형 어말어미로 결정되듯

어를 인허해 줄 부정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극어가 분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극어가 분포하여 올바른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정사의 분포가 필수적이다.

(15) ㄱ. 철수는 뭐 하고, 영이는 뭐 하노?

ㄴ. 철수는 영이가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노?

설명의문형 어말어미와 의문사의 관계는 부정사와 부정극어처럼 이어진 문장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그것은 어말어미의 특성상 (15)ㄱ처럼 이어진 문장 전체에 작용역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15)ㄴ처럼 내포문에 적용하면 조금 달라진다. (15)ㄴ은 내포문으로 ‘무엇’은 내포절에만 분포하는데, 이 경우 ‘무엇’은 의문사가 아니라 부정사(不定詞)로 해석된다.¹⁴⁾ 이는 내포절에는 의문사를 인허해 줄 수 있는 설명의문형 어말어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정문도 부정극어가 반드시 분포해야만 올바른 문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볼 때, (15)ㄴ도 설명의문문이지만 반드시 의문사가 분포하지 않아도 됨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¹⁵⁾

따라서 이러한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부산 지역어에서는 다른 언어에 비해 설명의문문의 형성에서 의문사의 역할 비중이 작아서, 설명의문형 어말어미와 의문사의 관계가 부정문의 부정사와 부정극어의 관계처럼 인허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 한 심사위원께서 (15)ㄴ의 ‘무엇을’이 의문사로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음을 제안해 주셨다. 만약 그것이 옳다면 모문의 어말어미가 내포절의 구성 성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국면(phase) 이론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장거리 소통은 불가능해야 한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논의를 기약한다.

15)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표준 한국어에도 보인다. 의문사와 관련된 표준 한국어와 부산 지역어의 이 차이에 대해서도 함께 추후 논의를 기약한다.

6. 결론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언어의 대조는 언제나 국가 경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어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현실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언어를 대조하기 위해서는 대조의 대상이 되는 개별 언어 모두에 대해 상당한 지식이 요구되는데, 국가 경계의 언어는 모두에게 상대적으로 익숙한 데 비해 지역어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어권의 지역어를 타 언어와 대조하는 일은 별로 연구된 바가 없고, 국내 지역어끼리의 대조 연구는 전문적인 방언 연구에만 있어 왔다. 이 연구는 글로벌 시대 혹은 트랜스-로컬 시대에는 국가 중심보다는 지역 중심적 사고를 요구한다는 생각으로 부산 지역어를 국가 표준어와 동등한 지위에 두고 그 개별성을 살피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영어와 중국어, 표준 한국어, 부산 지역어의 의문문 형성 방식은 언어마다 모두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영어는 주어-조동사 도치를 통해 판정의문문을 만들고, 여기에서 의문사의 가시적인 이동을 통해 설명의문문을 만들었다. 중국어는 평서문을 기준으로 의문 표지를 통해 판정의문문을 만들고, 평서문을 기준으로 의문사의 비가시적인 이동을 통해 설명의문문을 만들었다. 표준 한국어는 의문형 어말어미로 판정의문문을 만들고, 여기에 의문사를 분포하여 설명의문문을 만들었다. 부산 지역어는 판정의문형 어말어미로 판정의문문을 만들고, 설명의문형 어말어미로 설명의문문을 만들었다.

이처럼 한국어권 언어는 어말어미의 풍부한 발달로써 여러 양태적 의미를 표현한다. 그런데 이 연구를 통하여 부산 지역어는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도 어말어미로써 나뉘어 있어 의문형 양태 표현에 있어 표준 한국어보다 화자의 의향을 더욱 섬세하게 표현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다른 언어에 비하여 의문사의 역할이 다소 축소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설명의문형 어말어미의 존재로 인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이 논의는 개인적으로 부산 지역어를 국가 경계 언어와 대등한 관점에서

다루는 첫 번째 시도이다. 앞으로 관련된 추후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곡명월(2022), 「한국어와 화이안(淮安)방언의 의문문 대조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기가옥(2019), 「한국어와 쑤저우(蘇州)방언의 의문문 대조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형(2009), 『인지적 대조언어학의 방법론 연구 -한국어와 영어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사.
- 김용하.엄홍준(2020), 「한국어 Wh-구문에서의 통사론과 음운론의 접합영역 -경북 방언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86, 국제어문학회, 69-93.
- 김의수(2007), 「우연적 부정(不定) 표현의 통사 연구 -의문사+(이-)+-ㄴ가 구성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46, 한국문학언어학회, 1-28.
- 김혜영(2002), 「국어 의문사의 작용역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신애(2007), 「Wh-의문문의 중의성 해제 방안 : 경북 방언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재원(2022), 「트랜스로컬 주체성과 경계의 재구성」, 『현대미술학 논문집』 26-2, 현대미술학회, 65-89.
- 박진희(2003), 「국어 미정사에 대한 연구 : 부정사와 의문사 해석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주(2003), 「다중 의문문에서 제자리 의문사의 작용역에 대한 고찰」,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인진(2008), 「“머하노?”와 “머하나?”」, 『현대문법연구』 53, 현대문법학회, 103-122.
- 서정목(1984), 「의문사와 WH-의문 보문자의 호응」, 『國語學』 13, 국어학회, 33-64.
- 서정목(1985), 「접속문 의문사와 의문보문자」, 『國語學』 14, 국어학회, 383-416.
- 소신(2022), 「한국어와 상해(上海) 방언의 의문문 대조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홍준.김용하(2020), 「경북 방언의 의문사 작용역과 운율」, 『현대문법연구』 107, 현대문법학회, 23-41.
- 윤원희(2022), 「경상 방언 의문문 작용역의 지각 구분」, 『말소리와 음성과학』 14-2, 한국음성학회, 1-10.
- 윤원희(2023), 「경상 방언 내포문 의문사의 작용역 범주 지각 양상과 반응 속도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15-2, 한국음성학회, 1-11.

- 윤원희.김기태.박선우(2020), 「한국어 의문사 작용역을 나타내는 운율 단서: 경북 방언을 중심으로」, 『말소리와 음성과학』 12-3, 한국음성학회, 41-53.
- 이규호(2017), 「의문사와 부정사의 의미와 용법」, 『國語學』 82, 국어학회, 153-180.
- 이서립(202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의 의문문 억양 대조 연구 : 보통화·광둥 월 방언권 화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웅(2000), 「‘의문사+(이)-+·|가’ 구성의 부정(不定) 표현에 대하여」, 『國語學』 36, 국어학회, 191-219.
- 임홍빈(1988), 「‘무슨’ 과 ‘어떤’-의문에 대하여 : 의문의 통사론과 의미론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3-1,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79-194.
- 장반반(2021), 「한국어와 중원관화 푸양(阜陽)방언의 의문문의 대조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소원(1998), 「국어 의문사 어휘의 실제적 용법 연구」, 『언어』 23-4, 한국언어학회, 691-708.
- 장이원(2019), 「한국어와 칭하이(青海) 방언의 대조 연구 -어순, 격표지, 부정문, 의문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호정정(2020), 「한국어와 안후이 종양(安徽樅陽)방언의 의문문 대조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刘月华.潘文娉.赵淑华(2000), 『增订本实用现代汉语语法』, 商务印书馆出版社.(김현철 외 역(2005), 『개정증보판 實用現代漢語語法上』, 송산출판사.)
- Carnie, A.(2013), *Syntax: A Generative Introduction*, Third Edition, Oxford: Wiley-Blackwell.
- Chomsky, N.(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1998),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No. 15, MIT Press.
- Chomsky, N.(1999), *Derivation by Phase*,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No. 18, MIT Press.
- Huang, C. T. J.(1982), *Move WH in a Language without WH Movement*, The Linguistic Review 1-4, 369-416.
- Lasnik, H & M. Saito(1992), *Move α : Conditions on its application and output*, Cambridge, Mass: MIT Press.
- Pesetsky, D. & Torrego, E.(2000), *T-to-C movement: causes and consequences*, In Kenstowicz, M. (eds), *Ken Hale: A Life in Language*, Cambridge, Mass: MIT

Press, 355-426.

Rizzi, L.(1990), *Relativized minimality*, Cambridge, Mass: MIT Press.

정대식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051-510-1507

dsmail@pusan.ac.kr

접수 일자: 2025년 3월 28일

심사(수정, 재심) 일자: 2025년 4월 4일 ~ 2025년 4월 21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4월 23일

<Abstrac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Interrogative Formation in the Busan Dialect —Based on the Perspective of Contrastive Linguistics—

Jeong Dae-Sik(Pusan National Univ.)

This study examine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interrogative formation in the Busan dialect from a contrastive linguistic perspective, comparing them with those of other languages. With the increasing emphasis on global and trans-local perspectives, the need to place regional dialects—often marginalized in contrastive linguistics—on an equal footing with national border languages has become evident. This study highlights the linguistic significance of regional dialects and explores the distinct features of interrogative formation in the Busan dialect compared to other language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interrogative formation mechanisms in English, Chinese, Standard Korean, and the Busan dialect all differ significantly. English forms yes/no questions through subject-auxiliary inversion and wh-questions through the visible movement of wh-words. Chinese, on the other hand, constructs yes/no questions using question particles based on declarative sentences and wh-questions through the invisible movement of wh-words. Standard Korean employs interrogative sentence-final endings to form yes/no questions and distributes wh-words accordingly to form wh-questions. In contrast, the Busan dialect forms yes/no questions using yes/no question sentence-final endings and wh-questions using distinct wh-question sentence-final endings.

These results provide a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s between national border languages and the Busan dialect. Additionally, they are expected to help learners from different linguistic backgrounds accurately comprehend and acquire interrogative structures across languages.

* Key words : Busan, regional language, dialect, interrogative sentence, contrastive linguistics